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구술시험

정시모집 의예과 Part I

[문제 1]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5점)

[가] 한센병은 밀접접촉을 통해 확산되는 전염병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과 외모 변형으로 인해 한센병 환자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한센병 환자는 20세기 초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까지 소록도와 그 밖의 몇몇 지역에 격리되었다. 또한 유전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종 및 강제 낙태 시술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런 조치는 사라졌으나 한센병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다른 전염병과 비교할 때 과도한 차별과 격리의 대상이 되었다.

의학의 발전에 따라 화학치료제가 개발되어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고 격리가 반드시 효과적이지만은 않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 형성되었고, 여기에 세계보건기구의 강제 격리 철폐 요구가 더해졌다. 그래서 1963년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함께 한센병 환자의 강제 격리 규정이 삭제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교육, 경제활동, 거주를 포함하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들은 사실상 격리를 당하고 있다.

[나] A 관점에 따르면 질병은 한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일탈이며, 근대 의료는 일탈로서의 질병을 통제해 근대체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질병은 사회구성원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일탈로서 간주된다. 그럼에도 이 관점은 질병에 걸리는 것을 우연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B 관점은 낙인으로서의 질병에 주목한다. 이 관점은 특정 질병이나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회구성원이 비정상적인 대상으로 내몰리다가 점차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낙인찍힌 사람들은 자신을 낙인찍는 정상성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과 왜곡되는 자아로 고통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근대의료는 낙인을 형성하고 낙인찍힌 이들을 차별하는 성격을 갖는다.

[다] 경험주의적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판단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 또는 기타 법 외적인 요인, 가령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적 또는 직업적으로 겪었던 지난 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의 선입견이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많은 사람이 다소 의식적으로 '이방인은 모두 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은 대개 잠복성 전염병처럼 영혼의 밑바닥에 숨어 있을 뿐 사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우연적이고 단편적인 행동으로만 나타난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이유로 극대화되면, 그 암묵적인 도그마가 삼단논법의 대전제가 되어 그들을 격리·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수용소는 엄밀한 사유를 거친 논리적 결론이며, 이는 이방인에 대한 인식의 산물이다. 이 인식이 존재하는 한 그 결과들은 우리를 위협한다.

- (1) [나]의 질병에 관한 견해를 활용하여 [가]에 나오는 1963년 개정 전 전염병예방법을 평가하시오.
- (2) 당신이 전염병(한센병) 관련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면 한센병 환자가 사실상 계속 격리당하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다]를 기초로 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2]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15점)

[가] 당신은 폭발사고가 난 터널 안에서 구조작업을 하는 응급구조대원이다. 화재로 터널이 크게 손상됐지만 즉시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 들었다. 지금까지 115명이 대피했고, 터널 안에는 최소 30명의 부상자가 구조를 기다린다. 이들을 모두 구조하려면 약 9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입구는 버려진 차량으로 막혀 이동과 탈출이 지체되고 있으며 당신이 있는 위치에서 출발하여 탈출할 때까지 10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때 경찰이 “이번 폭발은 테러의 결과이며 터널 내부에 더 큰 폭발물이 있고 15분 후에 터지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구조대 살상을 노린 것”이라는 정보를 지휘관에게 알렸다. 이에 지휘관은 철수 명령을 전달했다. 현장에 있는 당신은 계속 들어가 구조할지, 즉시 철수할지 결정해야 한다.

당신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구조자 개인과 동료 구조자의 안전, 구조자로서의 의무, 그리고 구조대의 명령체계의 효과성 유지 등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나] 어떤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무위’는 ‘행위’보다 도덕적으로 덜 비난받는다. 예컨대 누군가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큼 비난받지 않는다. 한편 행위자가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대안가능성의 원칙’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할 수 없는 강요로 했다면 도덕적인 비난을 받지 않거나 덜 받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사례는 이 원칙이 행위와 무위의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례1> 나는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아이를 물속으로 밀어 넣어 죽였다. 그러나 나는 사악한 신경과학자에게 나도 모르게 뇌에 칩을 삽입 당한 상태였고, 만일 내가 아이를 죽이기로 한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사악한 과학자가 나의 뇌 활동을 조작하여 아이를 죽이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사례2> 아이가 연못에 빠졌는데, 나는 아이를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죽었다. 그런데, 나는 몰랐지만, 연못에는 악어가 떴어 있었고, 만일 내가 아이를 구하려고 했다고 해도 악어떼는 나의 구조를 방해했을 것임이 밝혀졌다.

<사례1>의 경우, 대안가능성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직관이다. 나는 자유의사를 가지고 죽이기로 결심했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례2>에서는 대안가능성이 없었고 따라서 나는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나는 아이의 죽음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다.

- (1) [가]의 사례에서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
- (2) [가]의 사례에 등장하는 구조대원이 구조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면 그는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이 입은 피해의 책임을 지는지를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